“세월호 참사, 한국 안전결핍 노출”

파이낸셜타임스 지적

“개혁 필요성 드러내”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안전상의 결점을 노출시키면서 광범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지난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선원들이 적절한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사망자가 302명에 달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이긴 하지만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안전규정에 대한 폭넓은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무엇보다도 선원들이 안전이나 비상대응조치와 관련한 훈련을 거의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관련법은 선원들이 열흘에 한 번씩 비상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세월호의 일부 선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런 훈련을 거의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이 지난해 직원들의 교육을 위해 쓴 비용은 54만1000원에 불과했다.

FT는 또 임시직 근로자 비율이 높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견해를 소개했다.

사고 직후 체포된 15명의 선원 중 9명이 임시직이었으며 이 때문에 해운사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킬만한 동기가 부족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FT는 그러면서 청해진해운의 이런 상황이 전반적인 한국 사회의 상황과 크게 동떨어져 있지 않으며 한국의 임시직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2배인 24%에 달한다고 전했다.

FT는 또 청해진해운이 관리들을 상대로 안전규정 위반 사례를 눈감아달라고 불법적 로비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세·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인천지방검찰청이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월호가 제한규정을 3배나 초과하는 무게의 화물을 싣고 있었단 사실을 거론하면서 해운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한국해운조합이 연락선이나 화물선 운항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어 로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FT는 한국 정부 부처와 산하 공기업 간 공공연히 자행돼온 낙하산 관행도 꼬집었다.

FT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 한국해운조합의 경우 이사장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이 해양수산부 관리 출신이라며 해수부 관리들이 자신들이 관리·감독하는 업계와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비판했다.

FT는 안전보다 성장을 우선시해온 한국이 산업재해와 관련해 좋지 않은 전력을 갖고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비판을 소개하면서 지난해 삼성전자·삼성엔지니어링·현대중공업·현대제철을 포함한 선도기업들의 한국 내 사업장에서 치명적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조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부인 유순택 여사가 지난 2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소재 뉴욕 총영사관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정례 검토회의 개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UPR)가 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2008년 도입된 UPR은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회원국이 서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권고하는 제도다. 각 회원국은 4년에 한 번 정도 검토를 받는다.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정례검토는 2009년 1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UPR에 앞서 북한이 사전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의무교육 강화, 아동권리보장법과 여성권리보장법 제정, 형법 개정 등의 노력을 통해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비롯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인권 개선 촉진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북한은 장성택 처형 사건으로 관심을 모은 사형제도와 관련,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행되고 있다”면서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고의적이고 가증스러운 중대 행위가 아니면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과 관련, 영국, 독일 등은 사전 질의서를 통해 인권 개선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영국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가 밝힌 북한의 반(反) 인륜 범죄 등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면서 북한이 밝힌 법적 조치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외교관과 언론, 유엔 등의 자유로운 접근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별도로 사전 질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1일 오후 진행되는 UPR에서 북한 대표단을 상대로 직접 질의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세계 경제대국 1위

142년만에 바뀌나

세계은행이 주관한 국제비교프로그램(ICP)에서 중국이 올해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됐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 30일 보도했다.

세계은행은 이날 내놓을 예정인 ICP 자료를 통해 2011년 구매력 평가(PPP) 기준으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의 87% 수준에 달한 가운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은 24%, 미국은 7.6% 성장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정치를 적용하면 중국이 올해 미국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예상대로라면 미국은 지난 1872년 영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올라선 이후 142년 만에 1위 자리를 내주게 된다.

세계은행, 구매력 기준

“중국, 올해 美 제칠듯”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오는 2019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했다.

상품과 서비스 가격 등 실제 생활 비용을 참작한 PPP 기준으로 경제규모를 비교하는 방식은 변동성이 심한 환율을 적용한 방식에 비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IMF 등 공공기구와 연구단체 등이 사용한다.

세계은행의 ICP 자료는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새로 산출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또 인도는 올해 세계 3위 경제국으로 올라서고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이 12위 내에 드는 등 인구가 많은 중간 소득 국가들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반해 물가가 높고 성장률이 낮은 영국과 일본은 지난 2005년 조사 때보다 순위가 밀려날 전망이다.

이번 ICP 자료는 중국 등 신흥 경제국이 제기하는 국제 경제질서 재편 논의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초강력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미국 앨라배마주 아든스.

美 토네이도 강타 … 사망자만 35명

미국 남동부 6개주(州)를 강타한 초강력 토네이도의 사망자가 확인된 숫자만 35명으로 늘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아칸소주, 오클라호마주, 아이오와주에서 적어도 18명의 사망자를 낸 토네이도가 전날에는 미시시피주, 앨라배마주, 테네시주를 덮쳤다.

이로 인해 미시시피주에서 12명, 앨라배마주와 테네시주에서도 5명이 숨져 이틀 동안 토네이도로 인한 사망자가 35명으로 집계됐지만 피해 정도가 심해 사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발생 사흘째인 이날도 강풍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위력을 떨칠 것이라면서 진로 예상지인 동남부 지역 주민 7천500만명에게 재난 방송에 귀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토네이도가 저녁 시간대에 미시시피주, 테네시주, 앨라배마주를 불어닥친 탓에 아직 정확한 피해 상황은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 사상자와 재산피해는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지역은 나무뿌리가 뽑힐 정도로 강력한 바람으로 가옥과 상가가 완파되는 등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다.

27일 초속 61m로 불던 바람은 28일 초속 89m로 강해졌다.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생가가 있는 미시시피주 터펠로의 중앙 상가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초속 84m의 강풍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발생한 테네시주 링컨 카운티는 부서지고 뽑혀 형체도 알아보기 어려운 각종 잔해만 6㎞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컸다.

EF3급(초속 61~74m)에서 하루 만에 EF4급으로 세진 초강력 토네이도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주는 사망자가 발생한 6개 주를 필두로 캔자스주, 루이지애나주, 네브래스카주, 미주리주 등 10개 주에 달한다.

로버트 벤틀리 앨라배마 주지사는 전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피해 복구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각 주의 재난관리부는 피해 복구를 마치면 사상자와 재산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바람은 세면서 느리게 이동하는 이번 토네이도의 특성상 기상전문가들은 노스·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버지니아주, 조지아주, 플로리다주 등 동쪽 지역은 직접 영향권, 동북쪽인 뉴잉글랜드 지역도 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미국에 두번째 ‘위안부 소녀상’ … 8월 디트로이트에

미국 내 두번째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이 오는 8월 디트로이트에 세워진다.

미시간주 위안부 소녀상 건립위원회는 오랜 산고 끝에 오는 8월16일(이하 현지시간) 디트로이트 지역에 속한 비즈니스 거점도시 사우스필드의 미시간 한인문화회관 앞에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고 제막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립위 관계자는 “매년 8월 셋째주 일요일(17일)에 미시간주 한인들의 광복절 기념행사가 있다”며 “이에 하루 앞서 소녀상 제막식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시간 한인문화회관 김종대 회장은 “지난 22일 문화회관 이사회가 소녀상 건립위의 부지 사용을 최종 승인했다”며 “디트로이트에는 일본 총영사관이 있고 인근에 일본 기업 400여 개가 진출해있어 일본인 사회 영향력이 크다. 하지만 한인단체 소유지에 소녀상을 건립하는 것에는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동상 제작은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과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글렌데일 시에 서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조각한 김운성·김서경 부부가 맡았다.

건립위 측은 서울에서 제작된 소녀상이 6월말 선적되면 7월 중순께 미시간주에 도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오는 6월1일 예산 충당을 위한 막판 기금모금 행사를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